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¹⁾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서고운 부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의 심층면접조사와, 주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8년부터 질적 패널로 본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는 현재 생활, 경제적 상황 직업/취업/자립상황 등에, 2020~2021년에 신규 패널로 구축되어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발달상황, 생애사건, 지원 경험과 요구, 코로나19 경험 등에 더 초점을 두어 인터뷰하였으며, 횡단적 분석뿐 아니라 종단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음. 지역사회 지원체계 연구에서는 읍면/소도시의 꿈드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웹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및 접근성 확대, ②학교체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꿈드림 접근성 개선, ③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족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④전문화된,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⑤읍-면지역,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⑥꿈드림의 역할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개선방안 마련, ⑦청소년 개인, 부모, 학교, 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18개 정책과제 및 33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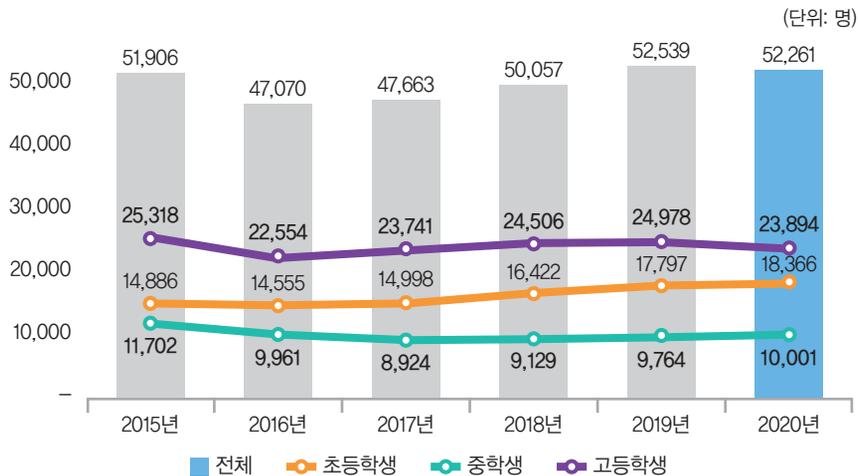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고유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2월 기준, 교육부에서 파악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52,261명으로, 초등학생이 18,366명, 중학생이 10,001명, 고등학생이 23,894명이었으며,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전년대비 278명이 감소하였으나, 학령 인구수 감소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

- 현재 시점 가장 최근 통계에서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32,02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조기유학 불가, 원격교육 대체에 따른 등교 불필요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021년 2월말 기준), <https://kess.kedi.re.kr/>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2015~2020년)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에서 연도를 수정하여 통계를 인출(2021년 2월 15일 인출)하여 그래프로 작성함.

[그림 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연도별 추이(2015~2020년 2월 기준)

▶ 대도시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읍·면지역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음. 학교를 그만둔 초등학생의 과반수 이상의 학업중단 사유는 미인정유학·해외 출국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부적응인 경우가 많았음(기타 사유 제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과 거주 지역, 학교를 그만둔 사유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 필요성을 시사함.

▶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도 있지만, 여전히 학교부적응과 학업에 대한 무관심,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음(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등).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박병금, 노필순, 2016; 백혜정, 송미경, 2015),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경우, 진로 준비가 더 미흡함에 따라 이들의 상태와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 ▶ 본 연구는 2018년에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패널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경험과 심리정서적 어려움, 진로 및 자립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읍·면·소도시 지역의 지원 체계를 조사하여 지역 격차로 인한 서비스 지원에서의 애로사항과 결핍 내용 등을 파악하여 소외지역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20대 중반이 된 기존 패널은 2018년부터, 10대 중후반인 신규 패널은 2020~2021년부터 질적패널조사에 참여하였음.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규모 파악, 질적중단연구 및 지역 격차와 그에 따른 불평등,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음. 또한 읍·면·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행정통계를 검토함.
- ▶ 질적연구: ①20대 중·후반의 기존 패널 중 읍·면·소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 18명을 대상으로 3차 면접조사를, 대도시 거주자 19명을 대상으로는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음. ②10대 중·후반 신규패널 23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읍·면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4명을 추가로 패널 구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웨다이어리 방식을 통한 생활시간도 조사함. ③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를 위해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고, 꿈드림 연계기관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FGI/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 2020년 기존 패널 면접조사는 대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음(그 외 지역 거주자는 패널관리조사 대상).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는 읍·면·소도시에 초점을 두었으며(2020년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조사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접조사는 대부분 온라인(화상방식)으로 수행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의 경우 현재 생활, 경제적 상황 직업/취업/자립상황 등에, 신규 패널은 진로관련 발달상황, 생애사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경험과 요구, 코로나19 경험 등에 더 초점을 두어 인터뷰하였음.
- ▶ 양적연구: 읍·면·소도시 지역의 꿈드림 85개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웹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63개 기관의 꿈드림 실무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음.
- ▶ 이외에 연구의 방향성 설정 및 조사지 타당성 검토, 통합적인 정책적 함의 도출 등을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하였음.

[표 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 내용	선행연구 고찰, 해외사례 조사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지역사회(읍·면·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조사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웹 조사	- 읍·면·소도시 중소도시 거주자 면접조사(18명) - 대도시 거주자 패널 관리조사(19명)	- 신규 패널 면접조사(37명) - 생활시간 조사: 웨다이어리 방식(5명)	- 문헌연구(행정통계 등) -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종사자 대상 웹 설문조사

3. 연구결과

▶ 지역 격차를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외사례

- 호주 : 외곽지역, 원거리 소외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청소년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직업 훈련과 수당 등을 제공하였음. 지역사회 지원의 우수사례로 이든(Eden) 지역의 컴퓨터 및 게임개발기술 교육·훈련 내용을 검토하였음.
- 일본 : 시마네현 마스다시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웃리치 홍보, 학습지원,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음.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지역은 다양한 직업체험 및 훈련, 니트 청소년에 대한 집중훈련 등을 제공하였음.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 지역은 빈곤가정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대일 방문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음.
- 미국 :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가정 및 청소년 지원국에서 ‘농어촌 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검토하였음. 버몬트 주의 노스이스트 킹덤 지역의 NEK 청소년 서비스와 NEK 커뮤니티 액션(Community Action)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전환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예방 및 안정화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면접조사 결과

- 2021년에 수집된 기존 패널 18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단계 1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이후의 미성년기의 삶을 ‘학업 지속과 중단’, ‘아르바이트 경험’, ‘학업지속세의 추구와 지원’,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기 유대 관계’, ‘차별’의 상위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업을 중단하거나 지속하는 경우로 나뉘어졌으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음.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부모와의 관계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었음. 학교를 그만둔 후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상실하거나,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 시선에 힘들어 하기도 함.
- 단계 2에서 모색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학업 재개 여부, 자립 기반 마련 여부, 직업의 안정성, 직업의 미래 전망, 부모의 지원 여부, 심리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구분하였음.
 - 유형 1은 학교를 그만둔 후 학업을 재개한 유형으로, 다양한 진로 모색을 통하여 삶의 기반을 확립하고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유형임.
 - 유형 2는 학교를 그만둔 후 학업을 재개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을 구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직장의 안정성이 낮은 편임.
 - 유형 3은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및 지지로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하여 사업 및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진로를 모색함.
 - 유형 4는 자립 기반 마련이 아직 미흡하며, 청소년기에 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사례도 있었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함.

▶ 기존 패널 질적 중단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협동연구)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중단연구]

- 2020년 기준 만 25세 이상인 고등학교를 그만둔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방적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하여 분석함.
- 학교를 그만둔 후 학교 밖 생활 경험에 대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학교 밖에서의 도전’과 관련해서 청소년기에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는 경우가 있었으며, 성인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
-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거친 길을 헤매며 걷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차별과 편견’관련해서 청소년기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성인기에는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도 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총 1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인 코딩과 범주화를 진행하여 분석하였음.
-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으로는 가족의 해체(부모의 이혼, 사망), 가족의 폭력 및 방임, 학교 폭력, 빈곤 등이 있었으며, 중복적으로 경험한 사례도 있었음.
- 이러한 부정적 생애경험에도 불구하고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은 관계적 지지체계는 미래를 다시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중단연구]

- 2018~2020년 면접조사에 참여한 9명의 패널과 2018~2019년, 2021년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맥락-패턴 분석방법으로 분석함.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중단하는 단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계’,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단계’, ‘길을 다져나가는 단계’를 거쳐 자립의 길을 걸어갔음.
- 가족, 관계망, 사회적 지원체계, 일반 사회라는 맥락이 자립의 과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읍·면/중소도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불편함’과 ‘부족함’을 지역사회의 부정적 특성으로 인식하였음.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면접조사 결과

- 2020년에 질적 패널로 구축되어 올해 2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23명의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과 올해 추가로 조사에 참여한 14명의 신규 패널 면접결과(총 37명)를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음. 가족 구성원 및 학교 교사, 친구와의 갈등 등 관계에서의 문제, 학업 중단, 학교폭력, 성범죄 피해, 따돌림 및 친구들의 놀림 등이 생애사건으로 나타남. 학교를 그만둔 경험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성격을 바꾸어 놓는 또는 자신을 수용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경험 제공 및 진로 지원, 성취 경험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경제적 지원(교통비)에서는 지역 격차를 보이기도 하였음.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지원, 자신에 대한 탐색과 전문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대학진학 지원 보완 및 실질적인 진학 준비 지원, 자립/취업관련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요구가 파악되었음. 읍·면/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 및 진로체험면에서 부족함을 느꼈으며 이들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로하였으며, 인식 차원이 아닌 실제 차별 사례도 있었음. 사회적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검정고시 및 자격증 준비, 인턴십 및 직업체험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였음.



[그림 2] 면접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수요

- 면접조사에 참여한 6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웹다이어리 방식의 생활시간 조사에 참여하였음.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능 공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등을 하며 일과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여가 시간에는 유튜브나 SNS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규칙적인 수면시간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 필요성이 나타남.

▶ 지역사회 지원 사례: 읍·면/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 읍·면/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5개 지역(4개 지역: 읍·면지역, 1개 지역: 소도시)을 선정하여 지역의 환경적 특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등을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5개 지역은 다양한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 산맥이 걸쳐져 있는 내륙산간 지역, 약 40%의 지대가 농경지인 농경지역, 산업단지 및 인삼 등 지역 특화 산업이 발달된 지역, 강, 산간지대, 분지가 발달해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환경적 특색을 고루 포함하였음.
- 선정된 읍·면/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작은 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 읍·면 지역은 7~36명, 소도시 지역은 112명으로 파악되었음. 재정자립도 역시 선정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3개의 읍·면 지역의 경우 자립재정도가 10%에 미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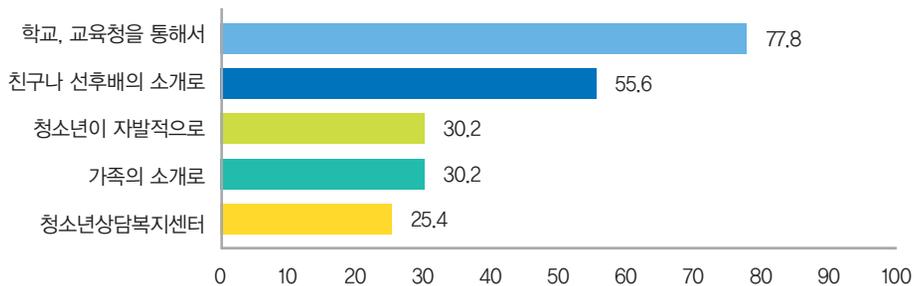
- 총 학교 수는 19~50개로 각 지역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5개 모든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인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꿈드림 외의 청소년 관련 기관은 부족하였음. 시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1): 읍·면/소도시 지역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교육청 연계, 지인 소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발굴되고 있었음. 발굴 과정 중 학교 연계에서의 어려움이 보고되었으며, 꿈드림 실무자들은 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한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근황 확인, 맞춤형 지원 제공을 실시하고 있었음.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가 적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산 사용 범위가 경직되어 있다는 애로사항과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읍·면/소도시 지역의 불편한 교통,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자리 및 자격증 취득 관련 인프라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등이 지역사회의 한계점으로 언급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연계 부족과 무관심이 지적되었음.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꿈드림 연계 기관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제도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적 기술 및 인성 관련 사전교육의 필요성, 연계 기관 대상 보상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

▶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2): 읍·면/소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읍·면/소도시 지역의 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는 인구 수 20만 명 이하 지역의 85개 꿈드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3개 꿈드림의 현장종사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음.
- 꿈드림을 이용하는 주요 경로는 학교·교육청을 통해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77.8%),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이용하게 된다는 응답(55.6%)이 그 뒤를 이었음(1, 2, 3순위를 합친 응답 비율).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 (1, 2, 3 순위 응답을 합친 비율)

- 독립적인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꿈드림은 7개로 전체의 약 10%정도였으며, 약 90%가 넘는 종사자가 꿈드림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10곳 중 4곳의 꿈드림이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약 60%가 넘는 종사자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건강검진 안내·제공,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5%가 넘는 기관들이 급식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의 직접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인터넷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50.8%),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46%)을 제공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꿈드림 종사자 3명 중 2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적·행동적 문제가 있고, 방임되었거나 가족 갈등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읍·면/소도시 지역의 약 80%가 넘는 꿈드림 종사자가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고,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으며,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약 90%가 넘는 종사자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70%의 종사자가 정부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종사자(93.7%)가 지역규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둘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읍·면/소도시 지역에 차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교통 지원, 전용공간 마련, 지원·인프라의 확장 및 연계를 제안하였음.
- 꿈드림의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자존감 및 상담 프로그램,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언어 및 학습지원 등이 제안되었음.
- 본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이 보고한 청소년들의 꿈드림 이용 중단 사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사 혹은 타 센터로의 이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84.1%), 약 90%가 넘는 응답자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꿈드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는 예산·공간의 확보, 종사자 처우개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학교와의 연계 강화,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평가 시스템 개선,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이 제안되었음.

4. 정책제언

- ▶ 선행연구 고찰,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 대상의 질적 자료 분석, 협동연구를 통한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읍·면/소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분석(행정/통계자료 조사, 꿈드림 현장종사자 및 관계자 면접조사, 꿈드림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총 7개의 정책 방향성과 18개의 정책과제, 33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차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지원 방향으로 하였음.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원방식의 다변화 접근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인→가족→지역사회→사회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성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①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및 접근성 확대, ②학교체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꿈드림 접근성 개선, ③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족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④전문화된,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⑤읍·면지역,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⑥꿈드림의 역할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개선방안 마련, ⑦청소년 개인, 부모, 학교, 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제안함.



[그림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방식 다각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2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1-1.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방식 다각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지원서비스 개발
	온라인 꿈드림 설치 및 연계
1-2.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꿈드림 사업 홍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학교와의 연계, 경제적 지원, 대학 진학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의 5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2-1. 꿈드림의 정체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지역사회 홍보	학교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
	지역사회 관계기관(주민자치센터, 교육지원청, 학원 등) 대상 홍보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대상 범위 확대	꿈드림 사업안내 범위에 학부모 포함 법제화
	교육 및 행정체계 적극 안내 및 꿈드림 업무 협조 의무화
2-3. 사회적 배제 없는 경제적 지원	청소년 1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필요(생계급여 분리지급)
	차등 없는 경제적 지원(교통비 등 현금성 지원)
2-4. 청소년생활기록부 및 장학금 등을 통한 대학 진학 지원 확대	청소년생활기록부 적극 활용 및 대학 진학 지원 확대
	동기부여와 실질적 지원 위한 장학금 및 포상제도 마련
2-5. 전문적인 치료 개입 및 심리정서적 지원 다각화	전문 상담(트라우마) 치료 지원
	학교 밖 경험자와의 멘토링 지원

- ▶ 가족체계 지원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부모(보호자) 코칭 지원 및 타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3-1. 부모(보호자) 코칭 지원 및 지역 내 가족복지지원서비스와의 연계

- ▶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및 확산,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4-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개발, 확산	
4-2. 다양한 직군의 직업체험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연계기관 대상 보상 지급
	직업체험 및 인턴십 전 사전 정보 전달 및 교육 실시
4-3.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제공 확대	
4-4. 인턴십 기회 확대 및 이동성 보장	읍·면지역 인턴십 기회 확대
	이동성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4-5.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연합사업 확대 제공	

- ▶ 중앙부처, 지자체, 사회전반의 지원과 관련하여, 꿈드림에 대한 접근성 향상, 꿈드림 인적자원 활용 효율성 증진, 꿈드림 실무자 업무유연성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대한 5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내용
5-1. 꿈드림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흥미로운 휴식공간으로의 재탄생
	위치 조정 혹은 분소 설치
5-2.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꿈드림 운영 조직 체계화
	진로지원 위한 전문인력 배치
5-3.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및 성과평가	지역·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범위 확대
	차별화된 평가 기준 적용
5-4.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인식개선 사업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대상 인식개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5-5. 학교 밖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 법제화	

참고문헌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패널조사 중심으로(연구보고20-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병금, 노필순(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 백혜정,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9-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2015-2020)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1년 2월 15일 인출.